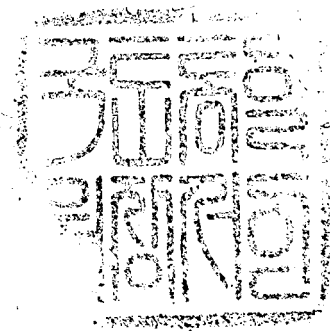


北韓의 主體思想

李 相 禹(西江大 教授)



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目 次

1. 머릿말..... 3
2. 主體思想의 本質 4
 - 가. 주체사상이 國家最高指導理念이 되기까지.. 5
 - 나. 마르크스·레닌主義와 주체사상.....11
 - 1) 體制正當化 論理로서의 주체사상11
 - 2) 주체사상의 理論化 과정13
 - 3) 주체사상의 內容.....16
 - 4) 마르크스·레닌主義와의 關係.....27
3. 北韓政治體制的 特性.....30
 - 가. 典型的 全體主義體制30
 - 나. 神政體制的 特性36
 - 다. 專制主義의 權力體制41
 - 라. 教化를 통한 지배체제43
 - 마. 單一 權威體制.....44
4. 金日成體制的 問題點.....46
 - 가. 超越的 權威의 유지문제47
 - 나. 1人專制體制 유지상의 문제48
 - 다. 代替體制的 排除問題.....49
5. 맺는 말.....52

1. 머릿말

북한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金日成主體思想〉이라고 하는 政治理念體系를 이해하여야 한다. 어느 政治社會이든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정치이념체계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에는 다른 어느나라보다도 정치이념체계가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金日成主體思想은 단순한 政治體系의 指導的 價値體系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領域에서, 그리고 個人의 일상생활의 구석구석까지의 모든 가치 판단의 준칙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처럼 철저히 하나의 思想體系로 사회구성원의 생활을 묶어놓았던 기록은 歷史上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오직 생각할 수 있다면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小說, 「1984年」과 같은 作品 속에서나 존재하였을 뿐이다. 스탈린(Stalin) 治下의 蘇聯이나 文化革命때의 中國도 북한의 현재상황에는 미치지 못했다.

북한사회를 이렇게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 金日成

主體思想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며, 이 思想體系의 本質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북한은 이러한 唯一思想支配의 全體主義社會가 되었는가? 앞으로도 북한사회는 계속 이런 상태로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變化를 겪게 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北韓을 관심있게 관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들이다.

이 글에서는 金日成 스스로가 「북한에 맞도록 創造的으로 발전시킨 마르크스·레닌主義」라고 자랑하는 金日成主體思想을 分析하여 그 正體를 밝혀 北韓共產主義의 本質을 규명하고, 이러한 體制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몇가지 抽出해 봄으로써 북한사회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主體思想의 本質

北韓社會를 연구하는 外部學者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는, 북한을 지배하는 唯一思想體系를 약간 修正된 마르크스·레닌主義로 인식하고, 마르크스·레닌主義 視角에서 북한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점이다. 그

것은 틀린 접근법이다. 金日成主體思想은 엄격한 의미에서 마르크스·레닌主義와 本質적으로 다르고, 또한 북한사회는 共產社會가 아니다. 金日成主體思想은 하나의 唯一神의 종교와 맥을 같이하는 世俗宗教이며, 北韓政治體制는 엄격한 神政體制의 全體主義國家일 뿐이다.

가. 주체사상이 國家最高指導理念이 되기까지

북한은 다른 共產國家와는 다른 방식에 의해 「共產化」되었다. 北韓은 蘇聯, 中國, 越南 등과 같이 國內의 共產주의자들의 주도에 의해 革命을 거쳐 共產화 된 것이 아니다. 폴란드, 동독 등 東歐 여러나라와 같은 이른바 「占領共產國」으로서 소련점령하에서 소련의 指導로 共產국가체제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점령공산국」의 하나이지만, 이들 東歐諸國에서처럼 土着共產主義勢力이 주동이 되고 소련군이 指導者만 데리고 들어와서 定着시켜주는 형식을 취하지 않았었다는 점에서는 北韓共產化는 東歐와도 다른 철저한 ‘輸入共產主義’라고 할 수 있다.

日帝占領下の 韓半島에서도 共產主義運動이 전개

된 적이 있었다. 日本留學生들을 통해 流入된 마르크스·레닌主義가 民族解放運動의 흐름을 타고 傳播되면서 마르크스主義者들이 1925年 4月 7日 「朝鮮共產黨」을 서울에서 비밀조직으로 발족시킬 수 있었으며, 이들의 活動은 日帝의 강압 등으로 별로 활발하지 못했으나, 그런대로 1945年 祖國의 光復과 더불어 하나의 주요 정치세력으로 政治舞臺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土着共產主義者들은 북한의 共產化를 주도하지 못했다. 소련점령군은 朴憲永 등의 南勞黨勢力, 金料奉 등의 中共에서 귀환한 共產主義者集團, 그리고 소련에서 蘇聯軍과 함께 북한에 들어온 蘇聯系韓國人集團 등 모두를 제치고, 가장 활동경력이 微微하던 滿洲의 中國共產黨 東北抗日聯軍 휘하의 1個部隊를 이루었던 金日成 및 그의 개인추종자 집단인 少數의 「甲山派」를 주축으로 平壤에 「朝鮮勞動黨」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을 세웠다.¹⁾

1) 金日成과 土着共產主義者들과의 관계 및 金日成의 執權過程에 대해서는 다음의 論文이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다. Chang-Soon Kim(金昌順), "Formation of Kim Il-sung Regime," in Chong-Shik Chung & Gahb-Chol Kim, eds., *North Korean Communism*,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80, pp. 9~78
 더 소상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들을 참조할 것. 金俊燁-金

김일성집단은 북한에 들어와 있던 다른 어떤 共產主義勢力보다도 國內支持基盤이 弱했으며, 또한 理念的으로도 전혀 정리된 思想體系를 제시할만한 처지도 되지 못하였었다. 金日成은 滿洲에서 抗日戰에 참가하였을 뿐이며, 中國共產黨 휘하부대에서 싸웠었다는 역사적 인연때문에 共產主義와 관련을 맺었을 뿐, 마르크스·레닌主義에 일찌기 心醉하였었다는 기록은 없다. 특히 그의 제한된 學歷이나 生長 및 活動環境을 미루어 볼 때 마르크스·레닌主義를 研究, 消化할 수도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²⁾

政治的, 思想的 뿌리가 전혀 없던 金日成支配集團이 소련군의 후원으로 북한의 共產體制를 구축하던 初期段階에서 蘇聯의 政治體系와 政治權力體制를 맹목적으로 모방하였던 것은 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할

昌順 共著, 「韓國共產主義運動史」, 全5卷, 서울:청계연구소, 1986 ; 梁好民, 「北韓의 소비에트化」, 高大亞研共產圈研究室編「北韓共產化過程研究」, 1972, pp. 1~27 ; 梁好民, 「政治:全體主義 1人獨裁體制的 확립」, 李相禹 등 共著, 「北韓 40년」, 서울:乙酉文化社, 1988, pp. 31~109.

2) 金日成의 生長 및 活動狀況에 대하여는 다음 資料를 볼 것: 徐大肅, 「金日成:그의 性格과 政治」, 韓國共產圈 研究協議會(共研協)編, 「北韓의 오늘과 내일」, 서울:法文社, 1982, pp. 64~92. 許東燦, 「金日成評傳:虛構と實像」, 東京:亞紀書房, 1985.

수 있을 것이다. 1948년에 채택된 憲法은 사실상 1936년의 소련 스탈린憲法과 거의 같고, 소련화된 마르크스·레닌主義를 北韓統治의 基本理念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金日成集團은 1950年代와 1960年代의 20餘年동안 국내의 모든 政治的 반대세력을 제거하는데 성공했으며, 金日成의 一人統治體制를 安定化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성공을 기반으로 새로운 統治體制를 구축하는 작업으로 추진된 것이 북한사회전반을 이끄는 “指導的 指針”으로서의 “金日成主體思想”의 體系化와 新憲法의 制定이었다.³⁾

북한은 1972年 12月 27日, 最高人民會議 第5期 第1

3) 金日成이 “主體”의 必要性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1955年 12月부터였다. 그러나 公式으로 이 概念을 내세우기 시작한 것은 中·蘇紛爭이 격화되기 시작하던 때인 1966年이었다. 이해 8月 12日 「로동신문」 社說에서 처음으로 「主體路線」이 거론되었다. 主體路線은 中·蘇理念紛爭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自己保護의 필요에서 北韓共產主義의 獨自性을 강조하려고 주장된 것인데, 1970年代에 들어와서 金日成體制의 特異性을 正當化하기 위한 필요때문에 體系的인 理念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主體思想의 發展過程과 特色, 性格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資料들을 볼 것. Ho-min Yang(梁好民), “Juche(主體) Idea: North Korean Ideological Setting,” in Chung & Kim, *op. cit.*, pp. 126-168; Han-shik Park(朴漢植), “The Ideology of North Korean Communism: A Critical Assessment,” in Jae-Kyu Park & Jung-gun

次全體會議에서 이른바 ‘社會主義憲法’이라고 부르는 신 헌법을 채택하였다. 共產主義國家에서의 헌법은 서구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헌법과 같이 最高基本法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때까지 달성한 成果의 기록에 불과하다는 견해⁴⁾를 따른다면, 북한의 1972年 新憲法도 이런 각도에서 새로 그 의미를 評價해 볼 필요가 있다.

이 新憲法은 우선 第1條에서 “自主的인 社會主義國家”임을 밝히고 있는 데, 이것은 舊憲法이 「人民民主主義國家」라고 국가성격을 선언했던 것과 對照가 된다. 이 조문은 북한이 1948年 憲法制定 당시의 「人民民主革命段階」를 이미 넘어서서 社會主義革命을 달성한 ‘사회주의시대’로 들어섰음을 공식으로 선언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들의 用語대로 이해한다면 社會主義時代란 이미 프롤레타리아獨裁가 완성되고,

Kim, eds., *The Politics of North Korea*, Seoul: IFES of Kyungnam University, 1979, pp. 143-162. 金甲喆-高性俊 共著, 「主體思想과 北韓社會主義」, 서울: 文佑社, 1988. 北韓側의 해설자료는 黃壯燁, “偉大한 首領님의 革命思想은 主體의 思想, 理論, 方法의 全-的인 體系,” 「근로자(勤勞者)」, 1979年 4月號, p. 20~28이 가장 체계적이다.

4) 鄭鎮涓, “(北韓) 憲法構造의 變化,” 韓國共產圈研究協議會編, *op. cit.*, pp. 22~44의 p. 26참조.

마지막 혁명목표단계인 共產主義로 넘어가기 위하여 社會內에 남아있는 前近代的 遺産들을 제거해 나가는 「過渡期革命時期」를 의미한다.⁵⁾

新憲法은 또한 金日成에게 共和國主席의 새 地位를 추가하였으며(第89條), 이 主席의 地位에 모든 國家權力을 集中시켜 완전한 1人獨裁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新憲法에서 國家主權의 最高指導機關인 中央人民委員會를 신설하여(第100條) 主席의 統治權을 보강하여 名實공히 법적으로도 主席 1인독재를 制度化 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이제 金日成이 黨을 의지하여 權力을 행사하던 시대가 지났고 직접 管轄하여 더 포괄적으로 獨裁力量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른바 “黨中心에서 國家中心으로”의 轉換을 의미하는 것이다.⁶⁾

新憲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金日成主體思想을 公式으로 唯一合法의 統治理念으

5) 이 過渡期的 特性에 대한 북한 스스로의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볼 것. 리성갑,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 특성과 과도기적 특성,” 「근로자」 1983年 7月호, pp. 15~21.

6) 徐大肅, op. cit., 참조. 徐大肅教授는 新憲法制定을 계기로 權力中心을 黨에서 국가로 옮기고, 社會主義國家를 가족이 統治하는 「個人國家」로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로 憲法化했다는 점이다. 신 헌법 第4條는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創造的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主體思想을 自己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로써 북한에서는 김일성주체사상이 政治發展의 목표와 政治活動指針을 결정해주는 最高理念이며, 사회구성원 모두의 일상생활의 行爲準則을 결정해주는 道德規範이고 행위의 善惡을 가려주는 宗教的 敎理로 굳혀졌고, 북한사회는 唯一의 信念體系만을 인정하고 또한 信念體系에 따라서만 모든 활동이 허용되는 철저한 宗教國家, 神政的 絶對專制國家로 變成된 것이다.

나. 마르크스·레닌主義와 주체사상

1) 體制正當化論理로서의 주체사상

政治이데올로기는 既存體制에 대한 抵抗意志의 표현으로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絶對王權支配體制에 대한 저항의지가 自由主義政治이데올로기를 낳았고 資本主義體制에 대한 抵抗이 마르크시즘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革命이데올로기는 그 추진세력들이 目標로 하고 있는 社會改革을 實踐해 볼 수 있는

支配的 權力地位에 오르게되면 그 역할을 달리하게 된다. 이제 抵抗意志의 結晶體였던 革命이데올로기는 새로운 지배세력의 改革推進의 행동지침이 되며, 또한 지배세력의 統治를 正當化 시켜주는 설득의 논리가 된다. 그리고 새로운 혁명이데올로기, 즉 挑戰하는 새 理念體系에 대한 防禦的 이념체계가 된다.

김일성주체사상은 처음부터 革命을 지도하는 혁명이데올로기로 발전된 것이 아니고 金日成集團이 統治權을 장악한 후 이를 正當化하는 이론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성격상 처음부터 현실정당화를 그 목표로 하는 방어적 思想體系의 特性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形式上的 특징 때문에 김일성주체사상은 다른 혁명이데올로기처럼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기 어려웠다. 마치 마구 집을 지은 후 거꾸로 설계도를 그려 맞추듯이 그 과정이 逆順이 되었기 때문에, 즉 現實과의 矛盾때문에 논리를 체계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현실적인 1人支配體制에서 民主를 論할 수 없고, 이미 「共產國家」로 인정받은 이후에 마르크시즘을 버릴 수 없고, 북한내에 존재하지 않는 부르주아지階級에 대하여 프롤레타리아의 鬪爭을 내세우기 곤

란하고, 第三世界の 指導者가 되겠다고 金日成 스스로가 國際主義를 주장한 터에 다시 民族主義를論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北韓支配者들은 1960年代 중반이래 많은 노력을 기울여 1970年代 중반에 이르러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創造的 發展形態”로서의 金日成주체사상체계를 완성하여 제시하였는데, 이 思想體系는 實質的인 金日成 1人神政體制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짜낸 最善의 論理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⁷⁾

2) 주체사상의 理論化 과정

북한은 蘇聯통제하에서는 독자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지 못하였고 오직 소련의 官製이데올로기를 수용하였을 뿐이다.⁸⁾ 북한이 독자적인 이데올로기의 개발 필요를 느끼기 시작했던 시기는 스탈린格下運動이 심화되던 1955년경이고 본격적으로 새 이데올로기를 정

7) 金甲喆교수도 主體思想은 金日成의 支配를 事後에 正當化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의 책, 「北韓共產主義理論과 實際」, 서울: 文佑社, 1984, pp. 176~179을 참조.

8) 北韓政權수립 초기에는 소련 모스크바大學에서 파견된 소련인 교수 한사람만이 마르크스·레닌主義 강의를 했고 교과서도 蘇聯 스탈린 時代의 官製교재인 「哲學教程」을 번역해서 썼다고 한다. 신일철, 「북한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서울: 사회발전연구소, 1987), pp. 20~21.

림해 나가기 시작했던 時期는 中蘇紛爭의 격화로 더 이상 中國이나 蘇聯의 官製이데올로기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없게 된 1966년경부터이며 독자적 이데올로기의 체계화를 이룬 것은 「主體哲學」을 처음으로 내어 놓았던 1970년대 초이다. 이러한 理論化 작업 진행에 따라 北韓의 全體主義 性格도 건국 초기부터 대체로 1960년대 중반까지의 스탈린式社會主義 全體主義 시기와 그 이후의 金日成主體思想에 기초한 1人獨裁型 전체주의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게 된다.⁹⁾

북한정권당국이 공식문서를 통하여 ‘새시대’, 즉 마르크스·레닌主義的 全體主義에서 金日成主體思想 全體主義로 轉移해 온 과정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955년 12월 28일 : 김일성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에서 처음으로 主體確立 필요성 강조.

9) 北韓에서의 官製이데올로기 정비과정을 申一澈 교수는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① 蘇聯모방기(1945~1957), ② 毛思想混入期(1957~1959), ③ 金日成思想준비기(1960년대초), ④ 主體哲學의 체계화시기(1966~1970), ⑤ 主體哲學의 완성기(1970~1973), ⑥ 金日成主義 보완발전시기(1973~현재). 신일철, *ibid.*, pp. 23~24. 표현을 다소 단순화시켰음을 밝혀둔다.

- 1966년 8월 12일 : 로동신문사설, “자주성을 옹호하자”에서 최초로 主體의 필요성을 공식선포.
- 1970년 11월 : 조선로동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개정 당규약 전문에서 “조선로동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우리나라 현실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同格으로 내세움.
- 1972년 12월 27일 : 개정헌법 제4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 본래의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지배이데올로기에서 제외.
- 1980년 10월 13일 : 조선로동당 제6차 전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전문에서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밝힘으로써 마르크스·레닌主義에서 완전독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北韓은 대체로 1970년대
- 부터 마르크스·레닌主義에서 벗어나 金日成主體思想
時代로 넘어갔음을 알 수 있다.

3) 주체사상의 內容

金日成主體思想을 北韓에서는 공식으로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우리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 뜻은 마르크스·레닌主義가 思想의 原型이며 여기에 ‘創造的 變型’을 가했다는 의미인데 마르크스·레닌主義 要素를 얼마나 존중시켰으며, 어느 정도 創造하였는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김일성주체사상의 공식해설이라 할 김일성대학 ‘哲學講座’의 방대한 내용에서 마르크스나 레닌, 그리고 그 외의 마르크스主義者들의 引用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金日成主體思想에서 마르크스는 죽었다”고 까지 표현하기도 하는데,¹⁰⁾ 실제로 마르크스·레닌主義要素 중 主體思想에 남아 있는 것은 ① 社會改革目標와의 關係에서 근로대중의 해방과 근로대중이 지배하는 社會체제를 理想으로 한다는

10) *ibid.*, pp. 11~16.

점. ② 生産手段의 私有制 不認定, ③ 個人의 自由와 責任을 社會와의 關係에서 파악한다는 人間에 대한 類的 本質(Gattungswesen)論 受容, ④ 革命成就方法에서 黨中心의 大衆動員을 주축으로 한다는 레닌戰略의 受容, 그리고 ⑤ 레닌式의 극단적 엘리트主義(elitism)의 수용 정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 외의 부분에서는 哲學的 基礎에서부터 階級形成論理, 理想社會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점에서 마르크스主義에서 벗어나고 있어 사실상 마르크스·레닌主義의 變型이라고 보기보다는 새로운 사상체계의 創造로 봄이 마땅할 것이다.

金日成主體思想은 人間중심세계관, 근로대중집단주의, 絶對的 엘리트主義의 세가지를 中核으로 구성되어 있다.¹¹⁾ 이 세가지 생각을 人民大衆에게 획일적으로 注入시켜 의식개조를 통한 人間改造를 성취하여 金日成을 神格化하려는 意識的 노력의 總體가 곧 金日成主體思想이라는 政治이데올로기로 보면 된다.¹²⁾

11) 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글에서 詳論한 바 있다. 李相禹, 「韓國의 安保環境」 第2輯 增補版, (서울: 西江大學校出版部), 1986, 第22章, “北韓의 오늘과 내일: 政治理念, 社會變化와 對南政策” pp. 387~411 참조.

대체로 1980년대초까지 완성된 金日成主體思想의 내용을 이 理論이 기초로하고 있는 인간중심세계관, 계급독재를 正當化하는 勤勞大衆集團主義, 그리고 金日成 1人獨裁를 정당화하는 個人專制論理등 세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해 보면 아래와 같다.

가) 人間中心世界觀

金日成主體思想이 기초로 삼고 있는 세계관은 「人間中心世界觀」이다. 金日成은 “主體思想은 사람이 모든 것의 主人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哲學的 原理에 기초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¹³⁾ 이를

12) 金日成主體思想에 대한 解說 및 分析에 대해서는 다음 글들을 볼 것. ① 金甲喆, 「北韓 政治이데올로기分析: 主體思想을 중심으로」, (서울: 書香閣, 1977), ②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서울: 건국대학교(박사 학위 논문), 1988), ④ Ho-min Yang, “Juche Idea: North Korean Ideological Setting,” C.S. Chung & G.C. Kim, eds., *North Korean Communism*,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80), pp. 126~168, ⑤ Han-Shik Park, “The Ideology of North Korean Communism: A Critical Assessment,” Jae-Kyu Park & Jung-gun Kim, eds., *The Politics of North Korea*, (Seoul: Kyungnam University Press, 1979), pp. 143~162. 北韓側 해설서로는 ① 황장엽,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 「근로자」, 1979년 4월호, pp. 20~28, ②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③ 김일성대학 방송대학 강의록, 「철학강좌」, 1973.

13) 「김일성저작선집」 第7卷, 평양: 로동당 출판부, 1978, p. 260.

좀 더 부연하면,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외부세계가 사람을 支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외부세계를 지배하는 地位에 있다는 것, 다시 말하여 客觀世界가 사람의 運命의 主人인 것이 아니라 사람 자신이 自己運命의 主人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¹⁴⁾

이러한 「主意主義」思想은 적어도 마르크스主義와는 근본적으로 相馳한다. 마르크스는 存在가, 즉 客觀的 條件이 人間의 意識을 지배한다는 哲學的 기초 위에서 그의 革命理論을 전개했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決定論的 世界觀은 객관적 혁명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産業化以前段階의) 後進領域의 마르크스主義者들에게 큰 불만을 주었었으며, 특히 “指導者의 意志”에 큰 비중을 주고 싶어하는 東洋的 政治文化傳統이 강한 中國이나 韓國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래서 중국공산주의운동에서 가장 큰 이론적 기여를 했던 李大釗도 마르크스의 決定論的 世界觀을 버리고 人間意志를 革命의 主力으로 보는 主觀的 世界觀을 택하였던 것이다.¹⁵⁾

14) 黃壯燁, *op. cit.*, p. 23.

15) 李大釗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국가란 사람이 만든 것이고, 광대한 우주 속에서는 個人이 스스로의 主人이다. ……그러므

金日成主體思想에서 주장하는 人間中心主義는 李大釗의 주장과 아주 흡사하다.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까지도 아주 흡사하다.¹⁶⁾ 後에 中國에서 意識次元에서의 혁명이라 부르는 文化大革命을 일으켰던 것도 혁명에서의 意識의 중요성과 그 意識의 改造 가능성을 주장하던 李大釗類의 思想的 脈絡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에서도 3大革命(思想·技術·文化革命)을 혁명의 최우선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中國과 같으며, 따라서 金日成主體思想에서의 人間中心思想 즉 人間主體思想은 中國共產主義에서의 李大釗類의 「自覺心」과 같은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나) 勤勞大衆集團主義

金日成主體思想에서 人間中心世界觀을 階級思想으로 확장하는 論理가 勤勞大衆集團主義이다. 김일성주체

로 環境을 우리의 意志에 맞도록 고치기 위해(우리는) 自由意志論을 택하여 진진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夫國家之成，由人創造，宇宙之大，自我主帝，…(故吾人)須本自由意志之理，進而努力，發展向上，以易其境，俾得适于所志…….” 그의 글, “厭世心與自覺心,” 「李大釗選集」, 北京: 人民出版社, 1962, pp. 28~35.

- 16) 金日成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사람은 目的 意識의이며, 능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世界를 自己의 意思와 요구에 맞게 改造해나가는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입니다.” 金日成, 「外國記者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담」 第2권, 1977, p. 243.

사상에서도 인간을 「社會的 存在」(Gemein Wesen)로 본다. 대체로 김일성주체사상에서 個人意識을 集團的인 階級意志로 확장하는 論理는 마르크스의 집단주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셈이다. 김일성주체사상에서는 사람의 본질적 特色으로 自主性和 創造性을 들고 있다.¹⁷⁾ 그런데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적 능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고, “社會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해온 사람의 社會的 屬性”¹⁸⁾이기 때문에 社會의 一員으로서가 아니면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질수가 없다고 본다. 즉 個人은 集團의 一員으로서만 의미있게 存在할 수 있고 그 集團은 個人의 확장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集團이 自主性和 創造性을 가질 때만 個人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金日成主體思想에서의 「主體」의 주체는 個人이 아니라 바로 개인의 集合的 存在인 「人民大衆」이다.

金日成主體思想에서의 革命論理는 바로 이러한 集團主義를 기초로 출발하고 있다. 革命은 “勞動人民大

17) 黃壯燁, *op. cit.*, p. 22.

18) *Loc. cit.*

衆의 自主性을 실현하기 위한 鬪爭”이며, 혁명의 목적은 “노동인민대중이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國家나 社會의 主人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데 있는 것”¹⁹⁾이다.

金日成主體思想體系에서의 집단주의논리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全體主義思想體系에서는 모두 個人의 확장으로서의 全體를, 그리고 개인을 전체의 一部로만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왜 個人의 의미있는 集合體가 「勞動大衆」 또는 「人民大衆」이라는 사회내의 일개계급에만 국한되어야만 하는가이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階級」概念을 이해하여야 한다.

金日成主體思想에서의 계급개념은 主觀的이다. 계급은 正統마르크스主義에서 말하는 生産關係를 기준으로한 社會的 地位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個人의 意識內容에 따라 정해진다. 즉, 主體的 革命意識을 가진 者는 「人民」階層에 속하고, 外勢依存的이고 반동적인 의식을 가진 者는 「反動」階級에 속하는데, 그 判定은 「黨」에서 하게 되어 있다.²⁰⁾ 북한은 공산혁

19) *Ibid.*, p. 24.

명을 치루지 않고 공산화된 사회이고, 투쟁해야 할 資本主義搾取階級이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에 의한 계급분류란 사실상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共產革命의 명분으로 執權한 이상, 一般 共產革命에서와 마찬가지로 ‘勞動人民大衆’을 혁명주체로 하는 革命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革命過程의 논리로만 正當化되어 오던 “共產社會로 가는 中間過程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獨裁”를 선언하여야만 현존의 金日成獨裁體制를 正當化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독특한 階級理論을 발명해 놓은 것이다.

北韓社會內에는 처음부터 싸워야 할 착취계급도 존재한 적이 없었고 또한 현재에도 없다.²¹⁾ 따라서 人民의 敵을 創造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

20) Han-Shik Park, *op. cit.*, pp. 151~152. 朴교수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Kim's class is based on an individual choice, rather than a social position. Practically, however, the choice is neither made by the individual nor determined by his social position but is the party's prerogative. The party alone determines who is among the proletariat and who is not.”

21) 北韓은 日本의 植民地여서, 地主도 資産家도 없었다. 支配階級을 이루던 日人은 귀국했고, 그나마 남아 있던 少數의 地主와 資産家は 모두 南韓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北韓에는 가난한 프롤레타리아만 남아 있던 상태였다.

었다. 이러한 必要가 만들어낸 논리가 「民族解放論理」이다. 북한은 南半部를 「朝鮮社會」의 不可分의 部分으로 본다. 그리고 南半部는 美帝國主義者의 植民狀態이고, 美帝의 앞잡이인 反動 부르주아階級이 人民을 착취하는 社會로 상정해 놓고 있다. 이렇게 想定함으로써 북한의 人民大衆은 싸워야 할 대상으로서 「南半部內의 착취계급」과 「美帝國主義者」를 가지게 되고, 북한내부에서는 意識的으로 이들 人民의 敵들에 동조하는 반동계급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북한은 현재 이런 허구적으로 만들어 낸 「階級の 敵」에 대해 계급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셈이며, 바로 이러한 투쟁이 前提되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獨裁를 정당화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 革命意識과 個人專制論理

金日成主體思想의 이른바 「人間中心世界觀」은 共產革命의 條件 중에서 「意識」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올바른 혁명의식을 革命의 主體인 「人民大衆」이 갖도록 만드는가 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김일성주체사상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한 철저히 레닌主義를 따르고 있다.

共産革命에서 프롤레타리아階級の 革命意識이 어떻게 生成되는가에 대한 論議는 마르크스以來의 가장 큰 論爭點이였었다. 마르크스는 歴史的 產物인 人間(決定論的 側面)과 人間의 역사를 만든 主人인 人間(主體的 側面)과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여 고민하였으며, 存在(being)가 意識(consciousness)을 결정한다는 근본적인 견해를 견지하면서도 프롤레타리아階級意識이 그들의 生成條件 속에서 자연발생한다는 주장을 自信을 가지지 못한 채 주장하였었다. 레닌은 바로 이러한 마르크스의 회의적 태도에 異論을 제기하였으며, “社會主義者的 意識은 처음부터 프롤레타리아의 屬性이 아니고, 歴史的 產物도 아니고, 프롤레타리아大衆의 自然發生的인 운동에 의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하는 革命的 知識人 엘리트의 屬性이다”²²⁾라고 분명하게 그 관계를 밝혔었다. 레닌과 레닌主義者들은 이런 理論에 따라 엘리트 政黨을 만들어 혁명을 이끌어 소련에서 공산혁명을 성공시켰었다.

22) V.I.Lenin, "What is to be done?", 1920.

金日成主體思想에서도 革命意識은 자연발생적이 아니라 주입시켜야 된다는 레닌主義를 그대로 따르나, 이를 한발 더 前進시켜 엘리트集團 아닌 金日成 個人的 指導로만 가능하다고 함으로써 레닌主義의 엘리트主義를 1人領導의 논리로까지 昇華시켰다.

김일성주체사상에서는 人民大衆의 政治的 自覺을 높이기 위한 黨의 “革命的 領導”가 혁명의 基本條件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勞動階級の 卓越한 首領”이 노동계급과 勞動人民大衆의 근본요구와 이익을 반영한 革命思想을 내놓고 그것을 指導的 指針으로 하는 黨을 창건하고 그의 革命的 領導를 실현함으로써만 노동계급은 비로소 “自主的 革命階級”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²³⁾ 主體思想을 북한측에서는 공공연히 個人專制임을 밝히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직선적인 표현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대중에 대한 黨의 영도는 본질에 있어서 首領의 영도이다. 黨이 근로인민대중을 영도한다는 것은 결국 全黨과 전체근로대중을 首領의 두리에 하나의 思

23) 黃壯燁, *op. cit.*, p. 26.

想意志로 굳게 묶어세워 그들이 수령의 영도를 따라 조직적으로 鬪爭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²⁴⁾

결국 이런 論理를 따른다면 金日成主體思想이란 어떤 체계적인 이념을 내세우는 全體主義도 아니고, 內容을 규정하지도 않은 채 1個人에게 모든 결정을 내리도록 권한을 白紙委任하는 個人專制의 주장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政治理念體系가 근본적인 가치문제에 있어서는 論理以前의 믿음에서 비롯되지만, 盲目的 믿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김일성주체사상은 하나의 宗教라고 보아야지 政治理念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4) 마르크스·레닌主義와의 관계

북한은 스스로를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創造的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自己活動의 指針으로 삼는 社會主義國家”라 부르고 있다. 그리고 마르크스와 레닌의 用語, 論理를 부분적으로 떼어다 김일성주체사상을 체계화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현재의 북한공산주의를 마

24) *Ibid*, p. 27.

르크스·레닌主義의 하나의 分派로 보아도 좋을까?

헌트(R.N.Carew Hunt)教授는 마르크스主義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세가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²⁵⁾

첫째, 唯物辨證法的 世界觀(史的 唯物論 포함)

둘째, 勞動價値說과 剩餘價値理論을 주축으로 하는 政治經濟理論

셋째, 프롤레타리아階級主導의 革命을 正當化하는 理論과 國家消滅論

北韓共產主義는 中國共產主義에서와 마찬가지로 唯物辨證法을 포기하고 있다. 存在가 意識을 決定한다는 마르크스의 기본테제를 버리고, 철저한 唯心主義를 취하고 있으며 人間改革意志를 歷史發展의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둘째의 조건에서는 북한공산주의도 철저히 마르크스의 所論을 따르고 있다. 生産手段의 共有 내지는 公有를 내세우고 있고 실제로 私有財產制를 철폐하였다. 셋째 조건에서는 북한공산주의가 마르크스主義의 原型을 앞지르고 있다. 프롤레타

25) R.N.Carew Hunt,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sm: An Introduction*. New York: The Macmillan, 1962, p. 16 참조.

리아獨裁의 이름으로 1人獨裁까지 그 理論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精神은 철저히 파괴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의 自由와 解放을 목적으로한 마르크스主義가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1人獨裁로 變했기 때문이다.

레닌主義의 엘리트主義는 北韓共產主義에 와서 역시 한단계 더 발전했다. 歷史的 使命感을 가진 少數 精銳인텔리에 의한 프롤레타리아의 意識化라고 하는 레닌革命戰略이 1人의 恣意的 領導를 주장하는 理論으로 발전한 것이다. 레닌에게 있어서 革命의 前衛役을 맡도록 배려되었던 革命엘리트集團인 黨은 북한공산주의에 와서는 1人의 영도를 받아 人民大衆을 그에 따르도록 그 영도를 실천하는 下手人의 役으로, 즉 領導的 지위에서 被領導的 지위로 떨어졌다.

결국, 프롤레타리아階級解放과 無階級 共產社會를 만들겠다는 마르크스主義가 김일성주체사상에 와서는 프롤레타리아계급을 포함한 모든 階層의 사람을 被支配者로 만드는 1人神政體制로,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財產을 못가지는 貧困의 平準化體制로 換骨脫胎된 셈이다. 金日成主體思想은 마르크스主義도 레닌主

義도 共產主義도 아니다. 이것은 20世紀後半에 새로 나타난 새로운 宗教, 그것도 邪教일 뿐이다.

3. 北韓政治體制의 特性

北韓은 누가 무엇이라고 규정하든 現實的으로 金日成 1人支配下에 안정되게 統治되고 있다. 그리고 이 體制는 이미 40年間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 體制를 무엇이라고 부를까는 미루어 놓더라도 특징은 우선 밝혀 두어야 될 것 같다. 가장 두드러지는 特徵을 몇가지 들어 보기로 한다.

가. 典型的 全體主義體制

40여년의 세월속에서 북한은 가장 완벽한 레닌主義的 全體主義社會로 성장하였다. 全體主義의 핵심적 本質은 온 社會의 모든 市民은 일상생활과 그들의 사상 및 행위에 대한 政權의 총체적 통제에서 찾을 수 있는데²⁶⁾ 오늘의 북한사회는 바로 이러한 전체주의사

26)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 Autocracy*, 2nd edition, (New York: Praeger, 1965), p. 16. 이들은 全體主義의 本質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the ess-

회의 本質을 가장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全體主義政治는 專制政治(autocracy)이다. 統治者가 통치를 함에 있어서 오직 自己에게만 책임지게 되면 그 통치자는 專制者(autocrator)가 된다. 專制者는 先例에도 매이지 않고 法에도 묶이지 않으며, 어떠한 政治組織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전체주의체제에서 統治者는 支配政黨의 指導者로서 政당의 절대적 지지라는 명목적 확인절차만을 거치고, 모든 통치행위를 恣意로 행한다. 전체를 위한다는 주관적인 道德的 正當性을 토대로 專制를 하는 정치체제가 全體主義 政治體制이다. 전체주의는 專制의 근거를 이데올로기體系로 美化한 것 이외는 본질적으로 神政體制의 專制政治나 絶對王朝時代의 전제체제나 같다. 그런 뜻에서 全體主義 정치체제는 20세기의 産業社會에 맞도록 꾸며놓은 專制政治라고도 한다.²⁷⁾

ence of totalitarianism is to be seen in such a regime's total control of the everyday life of its citizens, of its control, more particularly, of their thoughts and attitudes as well as their activities……the particular criterion of totalitarian rule is the creeping rape of man by the perversion of his thoughts and his social life……”

27) *Ibid* p. 15. “…totalitarian regimes are autocracies, …totalitarian dictatorship, in a sense, is the adaptation of autocracy to twentieth-century industrial society.”

全體主義 獨裁政權의 공통된 특징으로 프리드리히 (Carl J. Friedrich)와 브레진스키(Zbigniew K. Brzezinski)는 ① 人間生活의 모든 국면을 규제하는 이데올로기 ② 1人支配의 唯一大衆政黨에 의한 統治 ③ 黨과 비밀경찰에 의한 테러體制 ④ 大衆媒體의 獨占 ⑤ 武力의 獨占 ⑥ 全體經濟의 中央統制 등 6가지를 꼽고 있는데²⁸⁾ 이러한 모든 특징을 오늘의 북한사회는 다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완벽한 全體主義 典型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첫째로 北韓은 金日成主體思想이라고 하는 절대적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통치되는 사회이다. 북한의 현행 “사회주의 헌법”(1972년 제정) 제4조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公式이데올로기 支配社會임을 선언하고 있다.

둘째로 북한은 金日成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조선로동당에 의하여 통치되고 있다. 조선로동당의 主體思想이 국가의 지도지침이 되어 있는 북한에서 어떠한 다른 정당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선로동당의 예속조직일 수밖에 없다.

28) *Ibid* pp. 21~22. 편의상 단순화해서 제시했다.

셋째로 당과 당 지배하의 정부기관에 의한 反體制 人士 및 反動階級에 대한 숙청기록은 北韓의 테러체제의 효율성을 입증하여 주고 있다. 1956년의 이른바 「8月政變」 이후 북한에는 어떠한 형태의 반체제운동도 없었다는 사실은 北韓 테러體制의 효율성을 입증하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로 북한은 黨과 政府가 모든 大衆媒體를 독점하고 있다. 黨과 政府機關 이외의 어떤 단체도 언론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섯째, 사실상의 終身 主席인 金日成이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이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헌법 제93조)하도록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어떠한 武力을 사용한 반란이 있는 적이 없다. 이 점에서 프리드리히·브레진스키의 다섯번째 조건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北韓은 건국 이래 모든 經濟活動에 대하여 中央統制를 실시하여 왔다. 사회주의국가로서의 북한은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국가의 토대”로 하며(헌법 제2조)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헌법 제18조)이며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

유(국가소유)로 전환”(헌법 제21조)하기로 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헌법 제30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갖춘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철저하게 中央統制를 실시하는 나라이다.

이렇듯 北韓의 現實이 프리드리히·브레진스키가 제시하는 全體主義體制 特性 모두를 충족한다는 뜻에서 우리는 北韓社會를 가장 완벽한 全體主義體制典型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북한사회는 全體主義體制 중에서도 레닌主義 全體主義類型에 해당된다. 이오네스쿠(Ghita Ionescu)는 레닌主義 社會主義國家들이 가지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로 要約하고 있다.²⁹⁾ ① 戰爭에 起源한 出現 ② 生産手段의 私有철폐 ③ 幕僚(apparat) 國家 ④ 目標指向的(teleological) 國家 ⑤ 反對不許國家.

북한정권은 第2次 世界大戰의 결과로 蘇聯軍이 北韓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창출된 이른바 ‘占領共產政權’이다. 또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생산수단의

29) Ghita Ionescu, *Comparative Communist Politice*, (London: Macmillan, 1972), pp. 43-50.

私有를 처음부터 철폐했었다. 이오네스쿠가 말하는 幕僚國家란 지도자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 정권기구에 의하여 國家가 운영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막료는 黨의 일부 조직, 또는 軍의 일부 조직일 수도 있고 경찰조직일 수도 있다. 북한은 오직 金日成에게만 책임지는 조선로동당³⁰⁾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으므로 이오네스쿠가 말하는 전형적인 幕僚國家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처음부터 目的을 설정하고 政權을 세웠다. 北韓政權의 담당자인 조선로동당은 “當面目的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最終目的은 온 사회의 主體思想化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黨規約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끝으로 北韓은 一黨支配國家로서 어떠한 反對黨도 허용하지 않고 또한 黨內意思決定에서도 철저히 반대

30) 조선로동당규약(1980년개정) 前文에서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지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조선로동당은 김일성 이외에는 어떤 권위에 의해서도 통제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를 배제하는 體制를 갖추고 있으므로 ‘反對不許國家’의 특성도 철저히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北韓政權의 특징을 간단히 표현한다면 결국 가장 완벽한 “레닌主義 全體主義專制國家의 典型”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神政體制的 特性

북한정치체제는 소련점령군에 의하여 설계된 소련식 共產全體主義 專制體制로부터 시작되었다. 초기 북한정치체제는 비교정치학에서 논하는 이른바 全體主義模型의 여러 특성을 가장 완벽하게 갖춘 典型的 全體主義體制였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金日成의 지배역량이 증대함에 따라 金日成主體思想—金日成主義로 발전되어 온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經典으로 삼는 특이한 神政的 絕對主義 專制政治體制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政治의 世俗的 宗教化時期는 대체로 1970년대 중반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은 北韓의 지배이데올로기가 마르크스·레닌主義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神政體制의 특성은 統治權威의 神格化에서 찾아진다. 일반적인 全體主義 一黨專制政治에서는 專制의 當爲를 전체주의이데올로기의 實踐要求에서 구하며 黨의 물리적 支配力으로 統治權을 행사하나, 神政體制에서는 통치권의 당위를 超人間的인 絕對者의 神性에서 구하며, 통치권은 인민의 信心에 기초하여 행사한다. 북한의 경우 金日成主義는 金日成의 神格化를 위한 經典으로 개발되었으며, 政治敎化를 통하여 全人民에게 金日成의 神性을 믿도록 함으로써 神政體制를 구축하였다.

북한체제가 다른 全體主義 專制體制와 다른 점은 支配權威의 妥當根據設定에서 찾을 수 있다. 레닌主義에서는 프롤레타리아獨裁를 共產體制로의 轉換期, 즉 과도기에서 革命의 戰利品을 혁명의 敵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정당화하면서 人民의 뜻을 바르게 대표하는 黨을 지배권위의 담당자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北韓政權에서는 모든 權威의 源泉을 金日成 1人으로 한정하고 있다. 북한체제는 이런 점에서 근대적 전체주의 專制體制보다는 지배자의 神性에서 지배의 正統性을 찾는 東洋的 專制君主制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³¹⁾

統治權威를 조직이나 職이 아닌 自然人的 神性에서 찾게 되면 그 정치체제는 이미 神政體制로 된다. 보통 사람은 누구도 그 神性を 나누어 가질 수 없으므로 支配者의 地位를 승계할 수 없으며 오직 그 神性の 權威를 빌어 神性を 대표하는 사람이 위임한 사람만이 統治權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북한이 金日成의 神性を 支配權威의 원천으로 하는 神政國家로 되었다면 「權力承繼」란 있을 수 없다. 흔히 金日成의 統治權承繼者로 그의 아들 金正日을 거론하고 있으나 그것은 北韓體制의 神政性を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만일 金正日이 金日成의 後任으로 主席의 자리에 앉는다 하더라도 金正日是 오직 金日成의 權威로 統治할 뿐이다. 비유하자면 그리스도는 자기의 權威가 아니라 하느님의 權威로 인간들을 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하느님을 ‘承繼’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31) Friedrich & Brzezinski, *op. cit.*, p. 9. 참조. 여기서 oriental despotic regime의 특색으로 “...the legitimacy rests upon a divinely sanctioned blood descent and some sort of identification of the ruler with the deity as master of the universe”라고 표현하고 있다.

北韓에 一黨獨裁를 실시하고 있는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金日成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못박아 공언하고 있다(黨규약前文). 따라서 누가 黨의 새로운 수령이 되더라도 黨의 指導路綫을 바꿀 수 없게 되어 있다. 宗教에서 神의 敎理에 해당되는 것이 金日成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이므로 누가 黨의 수령직을 계승하더라도 수령의 職을 넘는 절대적 권위로서의 金日成의 말씀을 따라야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새로운 黨首, 黨간부는 오직 金日成敎의 司祭職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北韓이 단순한 一人專制 政治體制에서 金日成神政體制로 전환된 시기를 정확히 포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金日成主體思想을 ‘金日成主義’로 定式化한 때와 같이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金日成主義의 定式化는 대체로 1970년대초부터 시작하여 1974년 2월 19일 金正日이 “온 사회를 金日成主義化하기 위한 黨 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한 때쯤에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³²⁾ 그리고 金正日是 1982년 3월에 金

日成主義를 총정리한 “主體思想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같은해 4월 1일자 「로동신문」에서는 이 논문을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고 그 체계와 내용과 원리 및 방법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논문”이라고 평가한 것을 보면 아마도 북한 당국에서는 대체로 1980년대 초를 金日成神政體制 完成期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제 北韓은 金日成을 神格化하였고 金日成主義 經典을 갖추었고 조선로동당이라고 하는 司祭團을 가진 완전한 宗教團體가 되었다.

북한은 단순한 全體主義社會가 아니다. 共產主義國家도 아니다. 이제 金日成敎라는 특이한 唯一神을 가진 종교국가로 되었다. 북한사회의 이러한 종교국가적 특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의 북한사회를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의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그리고 북한의 對外關係도 北韓의 宗教國家的 특색을 전제하지 않고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

32) 金日成主義의 定式化過程에 대해서는 高性俊, *op. cit.*, pp. 69~77을 참조할 것.

다. 專制主義的 權力體制

北韓의 權力構造는 絶對君主制와 같다. 權力은 1人에 집중되어 있다. 모든 憲政的 構造는 1人支配를 위하여 존재할 뿐이다. 上向的 組織처럼 구성되어 있는 모든 會議體는 下向的으로 운영되고 있다. 憲法上 最高主權機關으로 되어 있는 最高人民會議(憲法 第73條)도 사실상 그 위에 있는 主席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있다. 主席이 首位가 되는(憲法 第101條) 中央人民委員會는 “國家主權의 最高指導機關”이며(憲法 第100條) 사실상 최고권력기관인데, 主席의 補佐役을 할 뿐이다. 북한권력구조에서는 司法權도 독립되어 있지 않고 軍統帥權도 모두 主席에 귀속되어 있다.

이론상 最高人民會議에서 主席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나 그것은 형식이고, 最高人民會議 자체가 金日成이 지명하는 單一候補에 대한 투표로 선출된 議員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獨自性은 없다. 權力構造上으로 보아 絶對君主制 이외에는 북한에서처럼 모든 권력이 한사람에게 集中된 權力體制는 없다.

北韓에서의 政治權力行使는 執權黨인 조선로동

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외형상 複數政黨이 存在하나 실질상으로는 一黨體制이다. 天道敎靑友黨, 朝鮮民主黨등의 이른바 友黨을 두고 있으나 이 당들은 모두 조선로동당이 지배하는 외곽단체일 뿐이다.

조선로동당은 철저한 中央集權的, 획일적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黨主席의 결정을 집행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다. 黨조직은 모든 정부조직, 지방조직, 軍, 기업소, 사회단체에까지 퍼져있으며 外形的인 政權기관의 운영원칙과 관계없이 黨조직을 통하여 전사회내의 조직을 통제하고 있다.

黨의 핵심조직은 政治局이며 여기에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政治局員은 모두 정권기관의 核心職을 가지고 있으므로 政權機關은 사실상 黨이 지배한다고 할 수 있다.

北韓의 權力體制는 역사상의 어떤 絶對王朝體制보다도 더 專制的이며, 현존하는 어떤 국가에서도 이렇게 완벽한 專制體制를 찾아볼 수 없을만큼 철저한 통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북한의 전제체제는 神政的 全體主義 이념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더욱 더 專制的으로 作動할 수 있다.

라. 敎化를 통한 지배체제

북한은 一次的으로는 物理的 強制力으로 全體國民을 통제하고 있다. 그런 뜻에서 북한주민은 統治集團에 의해 감시받고 있는 無力한 囚人集團과 같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集中的 敎化로 “人間을 改造하여 스스로 따르게”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인간에게 批判的 能力을 가지지 못하게 통제 한 후, 체계적으로 한가지 信念體系를 가지도록 敎化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1人支配體制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唯一神宗教의 敎育體系에서와 마찬가지로 金日成 1人的 權威를 絶對化하는 신념체계를 注入하여 自發的 추종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政治를 宗教化하여 지배체제의 안정을 구축해왔던 예는 역사상 그 類例가 많다. 가까이로는 朝鮮朝를 들 수 있다. 君主에 대한 맹목적 忠誠을 최고의 윤리적 德目으로 敎化함으로써 絶對君主制를 지탱하여 왔던 것이 그 예이다. 軍國主義 日本도 그 예이고, 나치즘도 또 다른 예이다.

政治의 宗教化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競爭的 思想도 流入되지 못하도록 全體社會를 閉鎖해

야 한다. 북한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로 統制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政治의 宗教化와 관련되는 현상이다.

마. 單一 權威體系

人間이 추구하는 價値가 다양하므로 自由로운 사회에서는 各各의 價値次元에 따른 位階秩序가 形成되고, 이러한 複合的인 位階次元間의 均衡으로 사회는 安定을 이루게 되어 있다. 權力(power) 次元에서의 位階나 富(wealth)의 次元에서의 位階, 그리고 榮譽(prestige) 次元에서의 位階가 各各 독자적으로 定해지며, 각 차원간의 位階가 相互交叉함으로써 社會의 계층이 斷層的으로 明確하게 나뉘지 않는다. 富에서 높은 位階에 있는 者가 政治權力이 없고 榮譽를 갖추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政治權力은 가지고 있으나 富의 차원에서는 낮은 位階에 위치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사회는 계층을 定하기가 어려워지고 交叉位階의 그물로 엮여지게 되어 社會全般이 安定을 이루게 된다.

北韓社會는 權力이라는 하나의 權威만이 작용하는

劃一次元の位階秩序로 되어 있어 계층간의 斷層이 분명하게 되어 있다. 즉 權力을 가진 者가 富도 榮譽도 독점하게 되어 있다. 자유로운 富의 추구가 허용되지 않는 共產經濟體制인데다 학문, 예술 등 創造活動領域에서 마저 自由로운 競爭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單一權威體系는 共產主義全體主義體制的 공통된 특색이나 北韓의 경우 그 어느 共產國家보다 그 정도가 심하다. 북한은 現存體制에 대한 忠誠心の 정도에 따라(潛在的인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社會構成員을 아주 세밀하게 구분하여 階級化하고 있으며³³⁾ 이 계급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 無階級の 社會를 만들겠다는 마르크스의 理想이 북한에서는 바로 그 마르크스의 이름으로 가장 顛倒된 階級社會를 출현시킨 것이다.

以上の諸特性을 綜合하여 보면, 북한의 現存政治秩序는 狂信的 宗教集團에 類似하나 한가지 다른 점

33) 北韓의 社會安全部가 나누어 놓은 1971年の 分類에 따르면, 「核心階層」27%, 「基本階層」(動搖階層)22%, 「複雜한 階層」(敵對階層)51%로 되어 있다. 階層移動은 許容되지 않는다. 極東問題研究所編, 「北韓全書」서울:1974를 볼 것.

은 參加와 拒否가 信徒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한의 支配集團은 국가권력을 독점하여 강제적으로 神政政治를 펴고 있는 것이다. 北韓政治體制는 1949년 英國의 作家 조지 오웰(George Orwell)이 쓴 작품, 「1984년」속에 묘사된 체제와 가장 닮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4. 金日成體制의 問題點

北韓의 金日成神政的 專制體制는 현재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000여만명의 住民을 적어도 큰 抵抗없이 통치해 나가고 있다. 金日成은 神格화된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外部로부터 크게 위협도 받지 않고, 그리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體制를 保持하고 있다. 이러한 20세기의 神話같은 現實이 얼마나 더 持續될 수 있을 것인가?

神政體制維持를 위해서는 초월적 權威를 가진 指導者의 神性を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組織이 있어야 하고, 追從者에게 代案을 발견 못하게 하여야 한다. 북한의 神政體制 유지가능

성을 이러한 要件에 전주어 評價해 보기로 한다.

가. 超越的 權威의 유지문제

神은 超人間的인 屬性을 가졌다고 믿어질 때 추종자가 그 權威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神의 초월적 권위는 神話로 說得된다. 金日成은 抗日鬪爭의 經歷부터 北한사회의 건설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게 造作된 神話와 오랜 政治鬪爭을 거쳐 구축한 權力을 가지고 현재 그 神性을 유지하고 있다. 金日成의 초월적 권위가 그 後繼者에게 승계될 수 있을까? 一般宗教에서는 神은 永生하기 때문에 그 後光으로 敎主가 神의 권위를 代行한다. 그러나 神政體制에서는 神的 權威를 가진 指導者가 죽으면 그 권위는 死滅한다.

絶對君主制에서는 血統자체를 神聖化하였다. 金日成은 현재 그 권위를 世襲을 통하여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金日成主體思想體系만으로는 혈통의 神性化는 불가능하다. 金日成은 그 治績을 美化하여 神的 權威를 창조하였지, 그 血統을 神聖化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北한의 경우, 金日成 死後에는 새로운 指導者가 새로운 神話를 다시 만들어야만 神政體制維

持를 위한 求心的인 存在를 가지게 된다. 이 點은 북한공산주의가 現存體制維持를 위해 겪어야 할 최대의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스탈린도 모택동도 그들의 神的 權威는 승계시키지 못했었다.

나. 1人專制體制 유지상의 문제

1人獨裁는 독재자의 死滅과 함께 와해되게 되어 있다. 1인에 集中되었던 권위가 독재자와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1黨獨裁體制는 그 생명이 길다. 自然人的 死亡과 관계없이 組織은 지속되기 때문이다.

조직되지 않은 個人은 조직된 集團에 저항할 수가 없다. 조직을 독점하고 다른 個人들이 다른 조직을 만들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만 있으면 1黨獨裁는 유지된다.

獨裁政黨이 쉽게 붕괴되지 않는 것은 黨員이 特權을 누리기 때문이다.

非組織員에 비해 특혜를 누리는 限 黨構成員은 黨에 남아있으려 한다.

레닌主義는 바로 이러한 黨員들의 特權維持 욕망을

활용하여 黨 獨裁體制를 革命管理의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레닌主義는 지금까지 모든 독재국가에서 그 偉力을 발휘하였다. 一黨獨裁는 외부세력에 의하여 붕괴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自滅한 예가 거의 없다. 나치스의 獨裁나 日本軍國主義集團의 獨裁는 모두 외부세력에 의하여 붕괴되었을 뿐이다. 共產獨裁體制가 지금까지 한번도 붕괴되지 않은 것은 바로 레닌主義의 偉力을 立證하는 것이기도 하다.

北韓은 金日成 1人獨裁와 조선로동당 一黨獨裁의 二重構造를 가지고 있다. 조선로동당組織이 金日成의 個人的 權威 아니고도 유지될 수 있는 自律性을 가지고 있다면 金日成 死後에도 조선로동당독재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이 自律性을 갖지 못하고 金日成의 권위에만 의존하여 운영된다면 사태는 다를 수도 있다. 軍 또는 官僚集團 등이 專制體制의 새로운 管理者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 代替體制의 排除問題

神政的 專制體制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國民들에게

代案을 선택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絶對君主制가 가능했던 것은 그 국가내에 統治力이 모두 미치고 있어 탈출의 方法이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철저한 閉鎖政策으로 북한주민들에게 代案에의 접근기회를 주지않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폐쇄정책을 固守할 수 있는 限 現存秩序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蘇聯과 달리 그 폐쇄성 유지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韓民族社會의 半에 구축된 政治體制이기 때문에 韓國이 北韓을 포기하지 않는 限 항상 南韓社會라는 代替勢力을 가지게 되어있다. 韓國은 北韓體制의 代案으로서, 그리고 북한사회의 폐쇄를 타파하려는 勢力으로서 恒存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韓國의 存在를 없애든가 아니면 적어도 韓國에 대한 우월성을 계속 유지하든가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北韓은 북한인민전체와 南半部內的 ‘同調勢力’을 ‘人民階級’으로 하고, 남반부내의 支配階層을 “人民의 敵”으로 하는 階級鬭爭을 선언하고 이 투쟁의 명목으로 소위 “過渡的인 프롤레타리아獨裁”라는 논리

로 현재의 神政體制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韓國의 지속적인 政治, 經濟發展으로 북한이 내세운 계급투쟁논리는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韓國에는 이미 프롤레타리아革命에 흥미를 느낄 同調勢力이 극소수로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63%에 해당하는 社會成員이 스스로를 中産層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40%가 人生의 目標을 “自己가 하고 싶은대로 즐기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³⁴⁾ 그리고 韓國의 프롤레타리아도 적어도 北韓式의 神政體制에 同調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서는 결국 북한의 階級鬭爭論은 南北韓對決, 즉 북한의 支配集團과 韓國社會全體와의 對決(북한의 일반주민은 囚人의 상태이기 때문에 除外)의 樣相으로 發展되고 있다.

北韓은 이미 모든 點에서 韓國에 지고 있다. 生活水準에서나 總體的 國力에서나 현저히 뒤지고 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북한으로서는 韓國을 排除하는 것은

34) 한국일보와 갤럽調查所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한국일보」 1983年 9月 20日字 참조.

조만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韓國이라는 代替勢力이 계속 커져가는 환경 속에서 北韓은 과연 神政體制를 固守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不可能하다고 보아야 한다.

以上에서 검토한 몇가지 문제를 종합한다면 北韓은 朝鮮로동당執權의 一黨獨裁는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적어도 현재와 같은 神政的 專制主義體制는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判斷이 선다.

5. 맺는 말

北韓社會는 지난 40여년간 특이한 종교국가로 성장하여 왔다. 蘇聯軍政 3년간에 북한사회는 蘇聯式 共產全體主義 專制政治體制로 개편되었으며,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생하면서 이 體制가 승계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당시의 北韓體制의 支配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레닌主義였었다. 또 그 당시의 통치체제는 소련식 레닌主義政黨으로 조직된 朝鮮로동당의 一黨支配體制였었다. 그러나 1960년대

에 들어서면서 支配이데올로기가 바뀌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에 이르는 약 10년간 北韓統治者들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創造的 적용”이라는 이름 아래 金日成主體思想이라는 새로운 1人 支配專制政治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그 전의 마르크스·레닌主義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북한당국은 金日成主體思想에서 모든 統治權威를 自然人 金日成의 權威에 연결하는 일층 강화된 정치이데올로기로서의 金日成主義를 내세우기 시작하였으며, 北韓社會 자체를 金日成唯一神을 받드는 宗教國家로 개편해 왔다. 金日成은 神格化되고 金日成의 言說은 經典化되었다. 이제 북한은 金日成의 生死와 관계없이 神性を 부여받은 金日成의 權威로 통치되도록 되었다.

金日成主義라는 宗教화된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통치하는 북한사회는 여러 점에서 다른 全體主義 專制社會와 달라지고 있다. 북한은 生産手段의 私有를 인정하지 않는 社會主義國家이며 人民獨裁의 階級國家이다. 그러나 階級을 財產 등 객관적 조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金日成主義에 대한 忠誠度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마르크스·레닌主義 국가와 다르다.

北韓은 조선로동당 一黨支配國家이다. 그러나 다른 一黨獨裁國家에서는 黨이라는 조직체가 權威를 독점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에서는 黨이 아닌 金日成1人의 神格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성을 갖는다. 이런 특성은 權力承繼문제에서 다른 一黨獨裁體制와 다른 모양을 보여준다. 蘇聯과 中國등에서는 黨자체가 權威의 堡壘이기 때문에 自然人的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 독재를 하게 되며 그 黨內에서의 序列鬭爭에서의 勝者가 統治者로 浮上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다르다. 權威의 源泉이 金日成의 神性이므로 그 권위는 누구도 承繼할 수 없다. 오직 金日成의 이름으로 司祭에 해당하는 사람이 統治를 할 수 있을 뿐이다. 金正日은 金日成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金日成의 권위를 빌어 다음 司祭가 등장할 때까지 統治를 하게 될 뿐이다.

북한의 이러한 世俗宗教的 지배 형태는 그 原型에 있어서 근대국가로서의 社會主義 全體主義體制보다도 王朝時代의 專制主義 國家體制에 더 가깝다. 朝鮮朝는 「儒教教理」라는 절대적 價値體系가 正當化해 주는

絶對主權에 의해서 통치되었으며 그 權威의 行使者는 王의 世襲王孫으로 承當되었었다. 그런 뜻에서 북한은 金日成王朝를 이룩했다고 보면 된다.

金日成王朝의 붕괴를 促進할 방법은 없을까?

역시 最善의 방법은 韓國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發展을 促進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韓國民族成員이 信念을 가지고 北韓支配體制에 반대할 때 그 體制의 壽命은 단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北韓의 主體思想

1989年 1月 25日 印刷

1989年 1月 30日 發行

發行處 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서울特別市 中區 獎忠洞2街 山5-19

電話： 234 - 4102
